

어서 오나라

Welcome!

마태복음 11:28-3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6월 5일 (성찬식) 설교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코피아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지요? 수고라는 게 뭘니까? 한자로 받을 수에 괴로울 고 아납니까? 괴로움을 겪는 게 수고인데 먹고사는 게 다 수고입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욱뵈다, 애썼다, (더 있습니까?) 하여간 다 같은 말입니다. 사는 게 수고입니다. 언제 끝이 납니까? 죽으면 끝이 납니다. 죽을 때까지는 수고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돈 번다고 몸 쓰고 마음 쓰고 또 먹고 산다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구끼리 부대끼고 또 사람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한다는 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옛날에는 짐승에게 지우고 요즘은 차 트렁크에 싣습니다만 차에 못 싣는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짐을 우리가 다 한 주 내내 지다가 왔습니다. 무슨 짐입니까? 지난 주간 두 가정이 이사를 하셨는데 짐 나르느라 수고하셨지요? 내다버릴 수도 없고 고생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무거운 짐을 날라야 될 때도 많습디만 무거운 짐이라 할 때는 주로 마음의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더 큼니다. 돈을 벌어야 식구들이 먹고 살 텐데, 크게 보시는 분이려면 세계 경제가 얼른 좋아져야 될 텐데, 아픈 분이려면 다친 허리가 얼른 나아야 될 텐데, 내 이 욱 하는 성질을 좀 죽여야 될 텐데, 아이가 공부를 좀 더 잘 해야 될 텐데..... 하여간 텐데 텐데 하는 게 다 우리가 지고 사는 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한 사람 예외도 없이 다 오라 하십니다. 사는 게 다 수고요 짐이라 했습니다. 수고 안 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라” 하는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 대신 “이리로!” 하는 부사를 썼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이리 나에게로!” 오라는 말이 없어도 척 하면 삼척이지요. 주로 이인칭 복수를 대상으로 할 때 쓰는 표현이라 그런지 (마 4:19; 21:38; 25:34; 28:6; 막 1:17; 6:31; 17:2; 요 4:29; 21:12; 시 95:1 LXX) “이리로” 하는 부사가 이인칭 복수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이리들 오세요!” 할 때의 “이리들” 쯤 되겠지요.

헬라어 말이 났으니 말입니다만 여러분 헬라어 모르시지요? 저는 압니다. 목사가 설교하다가 권위가 좀 안 선다 싶을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오늘 본문 원문을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수고한다 하는 말이 원어로 코피아오인데 우리말로 코피아오 하고 비슷하지요? 성경 원어하고 우리말이 좀 통합니다. 코피가 왜 납니까? 무리를 하면 납니다. 일을 조금만 하면 좋겠는데 그래 갖고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해야 됩니다. 과로라 하지요. 힘을 많이 써야 되고 때로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코피가 납니다. “코피 난 자들아, 다 이리 나에게로!”

안아파우오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게 뭘니까? 쉬는 건 가만있는 게 아니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안 하는 겁니다. 수고하던 걸 안 하고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쉽습니다. 사는 게 수고인데 쉬게 해주신다면 죽여준다는 말씀입니까? 말기환자들을 안락사 시켜 유명하게 된 의사 잭 케보르키언 (Jack Kevorkian)이 그 저께 세상을 떴습니다만 이 사람은 환자를 죽여 쉬게 한 사람이지요. 죽을 권리를 열심히 부르짖던 사람인데 본인은 죽을 때까지 별로 안 아파서 죽을 권리를 행사하지는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죽음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수고도 끝나고 무거운 짐도 그만 져도 되는 게 죽음입니다. 해방이지요. 지난 목요일 박재

실 권사님 장례식 때 전한 말씀입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는 건 안식이지요. 몸을 못 움직이니 짐도 못 지고 뇌가 멎었으니 걱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쉬을 주신다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 답이 있습니다. (제 권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쉬게 한다는 말의 원어는 아나파우오입니다. 이것도 또 비슷하지요? 안 아파요. 헬라어가 우리말하고 이렇게 가까운 줄 미처 몰랐습니다. 수고가 됩니까? 아픔을 겪는 것 아닙니까? 일하느라 힘들어 아프고 심지어 코피까지 나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면서 “안 아프게 해 주마” 하십니다.

제 권위는 그만 올라가도 됩니다만, 원문에 보면 “수고하고” 하는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다”는 말은 현재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완료의 공통점이 됩니까? 지금은 안 한다는 겁니다. 전에 수고했고, 무거운 짐도 지금까지 져 왔지만 이제는 수고도 안 하고 짐도 안 집니다. 왜요? 주님께 나왔거든요. 주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거든요. 누구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쉬을 연습니다. 안 아픕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현재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픈 까닭

우리가 왜 수고합니까? 왜 먹고사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이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다 하지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먼저 고통을 별로 받았습시다. 그런 다음 아담도 먹고 살기 위해 죽는 날까지 고생을 하는 벌을 받았습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인생의 모습은 쉽게 말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입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었던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즐거운 가정이 언제 괴로워집니까? 첫째는 사람 때문이지요? 말 한 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 신경질도 내고 다투기도 하는데 그런 말이 죄에서 나옵니다. 내 게으름 때문에 또 상대방의 이기주의 때문에 고통을 겪는데 게으름도 이기주의도 다 죄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아이들이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람 때문에 괴롭고 둘째로는 돈 때문에 괴롭습시다. 돈이 너무 많아서 괴롭다 하는 분은 여기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다 모자라서 괴롭지요. 우선 버는 게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너도 나도 벌려고 하는데 돈이라는 게 절대 액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못 가져야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 버는 일은 다 경쟁이고 때로 싸움입니다. 사람이 다 죄인 아닙니까? 신사적으로 경쟁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짓밟고 속이고 심지어 죽여야 내가 삽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제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벌기 위해 경쟁하고 안 빼앗기려고 싸우고.....

힘이 없으니 어찌겠습니까? 식구들 먹여 살리려면 자존심부터 팽개쳐야지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도 하고 법대 가서 판검사 되라고 압력도 넣습시다만 그런다고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제 부모님을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당하고 살 때가 참 많습시다. 억울하지요. 안 뺏겨도 수고, 빼앗겨도 수고, 이래도 저래도 인생은 다 수고요,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한 겁니다.

죄의 짐

이 모든 게 죄에서 왔습시다. 그래서 사실 짐 가운데 가장 큰 건 이 죄의 짐입니다. 남 하는 나쁜 짓에 당하기만 했습니까? 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쁜 짓 했습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겁이 납니다. 내가 열 번 사기를 당했다 해도 내가 남을 한 번 속이면 그게 마음을 찌르는 게 사람입니다. 남이 열 번 한 나쁜 짓은 그 사람이 벌 받을 일이고 내가 한 번 한 그 일은 내가 벌 받을 일입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온갖 고생, 수고, 이런 것에도 더하여 또 다른 수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죄책감입니다. 인간이 지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게 이겁니다. 겉으로 허허 웃어도 속에서는 평생 지어 온 죄가 나를 고발합니다. 죽은 다음 아니 살아생전에 반드시 벌을 받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의 노예가 됩니다.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노예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 괴롭지요. 그런 세월이 오래 계속되다 보면 에이, 될 대로 돼라 하는 자포자기의 단계까지 갑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이 사라지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는 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느라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그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 고생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사실 주님의 이 초대를 받고 이미 주님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었습니다. 감사해야지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이 마치 멍에를 맨 소가 주인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시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책을 벗어 버리고 참 안식 곧 쉼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주일마다

그럼 주님을 믿은 사람한테는 오늘 이 말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주님에게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우리도 메고 주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평생을 주님을 따르며 배울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오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드리는 이 예배시간이야 말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정기적으로 응하는 시간입니다.

나와서 가장 먼저 우리를 쉬게 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쉬는 거지요? 몸이 쉬는 이걸 상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이 쉬고 영혼이 쉰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보고합니다. 잘못 한 게 생각이 먼저 나지요. 주님은 분명히 안식을 주셨는데 되돌아보니 안식을 누리지 못한 때가 참 많습니다. 안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뒤섞여 살다 보니 우리도 숨 쉴 틈도 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은 때도 많았습니다. 이기주의, 게으름 이런 것들에 짓눌린 때고 있고 심지어 거짓말도 하고 속여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거 주님 안에서 쉼을 얻었다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잊지 않고 회개도 합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오직 하나님 뜻만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한테 덜 배워서 하나님 뜻 아닌 내 욕심, 내 탐욕, 내 이기주의, 내 성질을 순종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면서 앞으로는 내 옛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거듭 확인하면서 죄를 안 짓겠다고 각오도 하고 죄를 안 짓도록 도와 달라고 주님의 도우심도 구합니다. 이미 얻은 안식 더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와 더불어 주님께 우리 억울한 사정도 아뢰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참 애를 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삶을 살려고 또 노력했습니다. 이것도 멍에 맞습니다. 주님이 쉽다 하신 그 멍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주님한테 제대로 못 배워 이 멍에가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전에 지고 가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 하나만 지고 가는데 때로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정말 바퀴라도 달았으면 싶어집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짐을 가볍게 해 달라고, 아니 무겁게 느껴지는 이 짐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벼워지게, 짊어지고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 예배입니다.

잔치날

거기다 더해 오늘은 성찬식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니까 잔치지요. 쉰다는 건 아무 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던 일을 그만 두는 게 쉼인데 쉰다고 가만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하지요. 책만 보고 사는 학자 같으면 쉴 때 공놀이를 하고 운동선수는 쉴 때 책을 봅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고생하던 우리가 쉴 때는 뭘 합니까? 즐기지요. 놀니까. 뭘 하고 놀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먹고 마십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바치심으로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는 주님의 희생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쉼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와 더불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니 사는 게 즐겁더라는 것도 고백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사는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성찬은 우는 시간이 아니라 먹고 사는 시간, 먹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와 더불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백 퍼센트 순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순종 덕분에 우리가 쉼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우리는 주님의 이 멍에를 나도 메어야 되겠다 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은 순종의 멍에를 메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나는 목숨은커녕 몸 조금 불편하다고 돈 조금 없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의 멍에를 저도 기꺼이 지겠습니다. 이제는 무겁다고 불평하지 않고 참으로 가벼운 멍에 참으로 쉬운 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는 시간이 되어야 옳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 몇 사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을 새워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생했는데, 밤을 새워 수고했는데, 그게 헛수고였습니다. 그 때 주님이 오셔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신 다음 직접 갖고 오신 생선과 떡으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헛된 삶을 열매가 있는 삶, 보람이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다음 밥상을 준비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요 21:12). 같이 아침 먹자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같이 밥 먹자 하십니다. 내가 고생한 그걸 내가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이제 같이 먹고 쉬고 즐기자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더 얻는 날 주님의 식탁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 참된 쉼을 더욱 깊이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수경 목사)